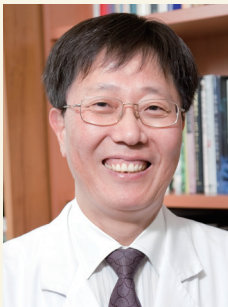


나폴레옹 황제의 주치의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나폴레옹은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는 당시의 의학이나 의사를 신용하지 않았고, 걸핏하면 의사에게 화를 내는 성미 급한 환자였다. 근대 심장내과의 개척자로 1804년부터 나폴

레옹의 주치의가 된 장 니콜라 콜비사르는 무리한 치료법 대신 최소한의 처치만으로 이 까다로운 환자를 치료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나폴레옹의 양생법은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믿으면서 위생을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치의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

초상화를 보고 “만약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 것이라면 돌아가신 분은 심장병이 있었겠다”고 죽집게처럼 맞춰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당대의 명의 콜비사르는 신중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나폴레옹이 “의학은 믿지 않지만 콜비사르는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는 황제가 퇴위할 때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 건강상태를 살폈다. 기분이 좋은 날이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앉아서 “선생, 오늘은 환자를 몇 명이나 죽이러 가시는지요?”라고 농담을 건네는 황제에게 콜비사르는 항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폐하”라고 대답했다.

그는 황제의 첫 부인인 조세핀의 진료도 담당했는데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옴아와 전염된 피부병의 치료나 불임증에 관한 상담이 주된 임무였다. 의리 깊은 콜비사르는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이혼하려는 것을 면전에서

반대하여 한동안 소원해졌을 정도로 남들이 감히 못 하는 바른말을 꾸밈없이 하는 용감한 인물이었다.

재혼한 마리 루이즈 황후의 분만실 옆방에서 후일 로마 왕이 되는 아들의 탄생을 주치의와 함께 기다리던 나폴레옹이 자기가 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갓은 고생을 극복하고 출세해서 황제까지 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자 끊임없는 자기 자랑을 듣다 지친 콜비사르가 “폐하, 제발 그만하십시오! 폐하가 대단한 행운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운이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폐하의 운도 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라며 꾸짖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황제는 “선생은 꼭 무식한 농사꾼 같이 말씀하시는구려!” 하며 언짢은 표정으로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공직에 임명해 주겠다는 정부 측의 제안을 동생이 그 직책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절한 공사구분이 분명한 인물이었다. 또 자신이 저술한 440페이지짜리 타진법(打診法)을 소개한 책의 서문에 원저자가 비엔나의 아우엔부르거 의사였다고 명확히 기재한(원저는 라틴어로 95페이지,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24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자였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학자이기도 했다.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일선에서 은퇴한 콜비사르는 끈질긴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공직을 맡지 않았으며, 나폴레옹이 죽은 해와 같은 1821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는 황제에게도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직언하는 용기 있는 주치의였을 뿐 아니라 혁명 후 혼란에 빠졌던 프랑스 의학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은 위대한 의학 지도자였다. ●